

| 모집단위 | 종 목 | 문 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디자인학부 무대미술전공 디지털콘텐츠 전공 | 기초디자인 | <p>(문제은행 4번, 6번)</p> <p>인쇄물로 제공된 사물들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화면에 자유롭게 구성·디자인 하시오.</p> <p>**주의사항**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말 것. 2. 제공된 사물의 색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. 3. 제공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함. 4.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할 것. 5. 화지방향은 가로로만 할 것. |
| 영화영상전공 (연기) | 실기 고사 [지정 연기] | <p>소재</p> <p>“당신은 어찌 보면 미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군요. 그래야 돼요. 여기는 비록 피가 나게 싸우고 죽이고, 서로를 믿지 않고, 맨날 같은 일이 되풀이 되죠. 재미없고 쓸쓸해서 미칠 것 같아요. 그래도 살아 볼만한 곳 이에요. 당신도 하루 빨리 땅으로 내려오세요. 허망한 구름 위를 헤매지 마시고, 구름은 밟으면 죽을 뿐이잖아요. (소리를 낮춰) 당신은 아주 착하셨던 분이였을 거예요. 아주, 그래서---하지만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야 했어요. 당신은 세상에 진 거지요. 패배자일 뿐 이에요.”</p> |
| | | <p>소재</p> <p>왜 무시해요? 뭐가 멍청한데요? 좋아해주는 것도 죄예요?</p> <p>다 알거든요. 당신이 요새 노래 막 부른다는 거, 노력도 해보는 척만 하다가 진짜 힘들면 도망가버린다는 거, 당신 색깔이 뭔지 찾지도 못하고 허우적대고만 있다는 거. 다 알고 있거든요. 우리도. 근데 그래도 왜 당신을 좋아하느냐?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니까, 1집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노래 잘 했으니까, 그때 그 기대를 접고 싶지 않으니까... 우리까지 없으면 당신은 정말 무너지니까! 떠나버릴까요? 정신 좀 차리게? 오빠는 무슨 얼어죽을 오빠야. 동갑 주제에.</p> |
| | | <p>소재</p> <p>(깨달은 듯) ○○, ○○야! 할 말 있어. (○○를 잡지만 뿌리치고 계속 걷는다. 다시 쫓아간다. 큰 결심한 듯) 나한테 그랬지? 사랑은 상대를 배려해가면서 해야 된다고. 함부로... (따라와 중앙선에 선다. 차들은 이들 곁으로 무섭게 지나들 가고) 넌 나를 배려해서가 아냐. 단지 자신이 상처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일부러 안타까운 짝사랑을 하는 척 즐기고 있어. 액자 속의 그림을 보듯, 창밖의 풍경을 보듯. 넌 비겁해. 평생 사랑을 못해 볼 거야</p> |



| 모집단위 | 종 목 | 문 제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연극전공 (연기) | 실기 고사 [화술] | 소재 내가 너한테 나쁜 영향을 줬다는 부모님 말씀이 옳아. 실패한 내 모습을 보고 너만이라도 올바른 길을 걸었으면 했지.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. 난 내 실패를 포장하고 싶었어. 난 네가 성공을 해서 나하고 비교될 때, 내 꼴이 하찮게 보이는 게 싫었거든. 네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어. 난 늘 널 질투했지. 넌 어머니와 아버지의 희망이었으니까. 그런데 말이야, 난 네가 밍기보단 좋아. 이렇게 있는 대로 떠들어대는 것이 그 증거지. 그나마 나한테 남아 있는 거라곤 너뿐이니까. |
| | | 소재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말하더군요. 하기와 사람들도 그분이 취한 걸 직접 본 적은 없다고들 하지만, 그런 소문이야 금방 퍼지게 마련이죠. 어떻게 알았느냐고요? 저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죠.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, 사람들에게 다 들은 얘기에요. 뭐, 그런 거 아는 게 어렵겠습니까?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웃겨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. 본인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다니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?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알아보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죠. |
| | | 소재 이곳은 고대 시생대 화강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의 하나죠.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. 데본기의 현무암 사주가 중생대 이판암의 흔적과 함께 그것을 가로질러 가며 몇몇의 사암도 노출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좀 더 최근의 일이죠. 2억년 내지 3억년 됐지요. 매우 흥미로운 화석들도 발견되었습니다. 매우 독특한 화석들이라 할 수 있죠. 읍내에서 2마일 떨어진 목장에서요. 그것들은 우리 대학 박물관에서 언제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적당한 시간이어야 하지만요. 그루버 교수의 기상학적 현황 자료도 읽을까요- 강수량 같은 거 말입니다. |
| | | 소재 속였다고요! 떠났어요! 아프다고 해놓고, 의사 선생을 불러 달라고 나를 보내놓고서 도망갔다고요! 대체 왜 이런 야비한 속임수를 쓰고 비열한 짓을 벌였던 말입니까?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말입니까? 그 바보 같은 놈하고 도망치기 위해 나를 보내버리다니 참을 수 없어요,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요!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칩시다. 그럼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, 왜 이런 속임수를, 무엇 때문에 이런 비열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속임수를 쓰냐 말입니다!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? |
| | | 소재 고통을 더는 참을 수가 없어. 이건 고통 그 이상이야. 참을 수가 없어! 어제 아침부터 마치 10년이 흐른 듯해. 이런 고통을 받다니 내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게 분명해. 신께서 다른 일들은 모두 제쳐두고 날 벌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붓고 계심에 틀림없어. 어디가 아프냐고? 전부 다 아파! 그냥 이빨 하나가 아니야. 입안 전체가 아프다고. 아아... 앓는 것도 고통스러워. 신경을 제거한다고? 살살하실 거지? 어릴 적부터 내 주변엔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았어. 그걸로 뭘 할 건데? 저리 비켜! 사기꾼 같으니! |
| | | 소재 당신만은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솔직한 것임을 알아줬으면 좋겠어. 이제껏 거짓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은 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라고 내버려 뒀. 그러나 그게 나한테 위선이야. 하나님께서 뻔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허영에 지나지 않아. 그 허영 때문에 내 자식들을 찬바람 맞으며 집 없이 헤매게 할 순 없어.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? 아냐, 난 내 죄를, 내 죄만을 가지고 있어!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, 제가 누굽니까,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? 이렇게 하는 것이 정직한 일 같아. 그런 생각이 들어. 난 성자가 아니니까. |

2024학년도 수시모집 실기고사 기출문제

| 모집단위 | 종 목 | | 문 제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---|
| 연극전공 (연기) | 실기 고사 [화술] | 소재 | <p>당신만은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솔직한 것임을 알아줬으면 좋겠어. 이제껏 거짓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은 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라고 내버려 뒀. 그러나 그게 나한테 위선이야. 하나님께서 뻔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허영에 지나지 않아. 그 허영 때문에 내 자식들을 찬바람 맞으며 집 없이 헤매게 할 순 없어.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?</p> <p>아냐, 난 내 죄를, 내 죄만을 가지고 있어!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요, 제가 누구니까,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? 이렇게 하는 것이 정직한 일 같아. 그런 생각이 들어. 난 성자가 아니니까.</p> |
| 사진영상 미디어전공 | 사진 촬영 실기 | 소재 | <p>[출제분야] 제한된 공간에서 주어진 주제로 30분 이내 사진촬영 후, 9컷 선정 usb에 담아 제출.</p> <p>피사체의 표면과 형태를 소재로 하여 선명한 표현을 이용한 예술작품을 구성하시오.</p> |
| 디지털만화 영상전공 | 만화 능력 테스트 | 소재 | <p>아래의 상황을 기승전결의 칸만화로 구성하시오.</p> <p>핸드폰이 고장난 주인공 ‘나’는 엄마에게 허락을 받아 새 폰으로 교체를 하러갔다. 아주 특이한 폰이라며 내놓은 낡은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신비의 세계로 안내한다. 도대체 어떤 폰일까!</p> |